

# World Toilet

중국대륙 시리즈 제11편

## 신중국 이전의 성내 생활



글 |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MBC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협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뿔골목 옛보기', '프랑스 뿔골목 이야기', '지구촌 뿔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vs카리스마', '이건희  
소설: '외인부대원 프래임'

골목 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감동케 하는 한 곡의 교향악이다.  
맑은 아침은 바로 연속되는 물건파는 소리들.  
어깨 벨대의 양쪽은 미나리, 매운 피망, 부추, 오이  
그리고 푸른색의 잎사귀 위에는

이성도 전 주길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잠시 지나면 강미소향년(江水小香年 백설기 같은 것)을  
파는 손수레가 밀면서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평평평평키리는 와야의  
밤은 매정매정기죽이리  
가장 반음에 응하는 것의 어둠의 어둠시  
술의 어둠의 어둠의 어둠이 다친카카워하는 소리기  
광기중에 울부짖는 꽃부리를 흔들어내리

1921년 4월의 평양군 1997.10.29



# 19

49년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북경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북경은 크고 작은 3천 개의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마다 아침에 행상들이 지나갔다.

골목 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감동케 하는 한 곡의 교향악이다.  
맑은 아침은 바로 연속되는 물건파는 소리들.  
어깨 멜대의 양쪽은 미나리, 매운 피망,부추, 오이  
그리고 푸른색의 잎사귀 위에는 아직도 진주 같은 물방울이 떨어진다.  
잠시 지나면 강미소책년(江米小糶年:백설기 같은 것)을  
파는 손수레가 밀면서 지나간다.  
그런 후에는 땡땡땡 거리는 대야와 밥그릇 땡질하는 사람이다.  
가장 마음에 울리는 것은 거리의 이발사 손안의 쇠로 된  
이발도구이니 찰찰찰각하는 소리가 공기 중에 출렁이는 꽃무늬를 흔들어낸다.

작가 숙건(肅乾 1907-1988)이 쓴 1920년대 북경의 골목 풍경이다. 이어 숙건은 북경의 골목 안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썼다.

북경의 물건 파는 소리는 계절을 탄다. 봄에는 올챙이, 우렁이요, 여름에는 연뿌리와 랑필(중국식 녹두묵), 가을에는 볏의 향기가 그윽하고 찰지며 겨울에는 구운 고구마가 매우 뜨겁다. 채소장사, 찻쌀, 백설기장사, 땡쟁이, 골목이발사, 올챙이, 우렁이장사, 연뿌리장사, 녹두묵장사, 밤장사, 군고구마행상, 밀가루과자, 훈제 생선장사, 점쟁이, 걸인, 길거리의 탕후루(당호로)장사, 이런 사람들이 골목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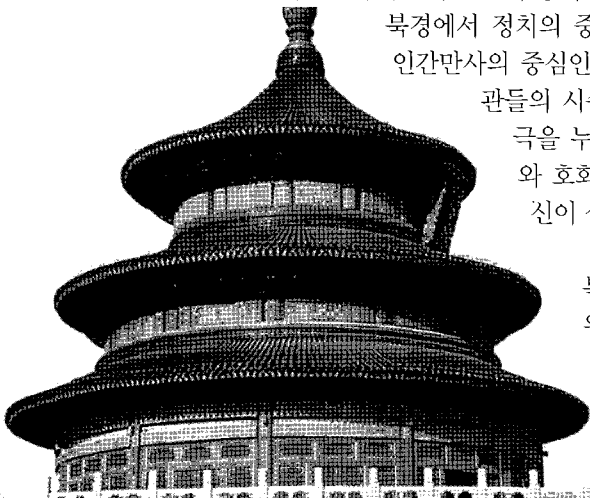
## 천단(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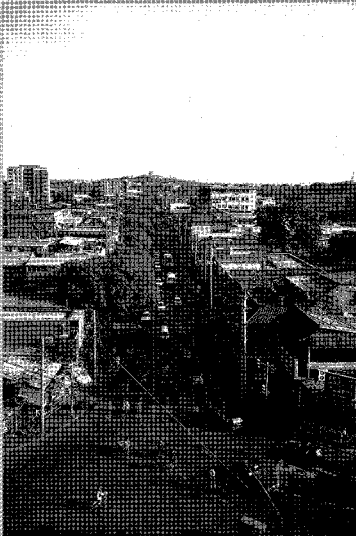
그러나 그런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는 달리 황제는 땡땡거리며 살았다.

북경에서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금성이었다. 인간만사의 중심인 것이다. 9999칸이라는 그 거대한 자금성에서 내 관들의 시종을 받으며 그야말로 9겹의 구중궁궐에서 호사의 극을 누리며 살았다. 자금성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호화의 최대치였다. 그러나 신들은 다른 곳에 살았다. 신이 살던 곳, 그곳은 바로 천단(天壇)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정치의 중심이 경복궁이나 창덕궁이었다. 왕의 조상들은 종묘에 신위를 안치했고, 왕은 정월에 원구단에 나아가 하늘의 신에게 풍작을 기원했다.

북경의 천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곳이다.





천심석 (우주의 기를 받아 건강해진다하여 관광객의 인기가 높다. ▲

### 고풍스런 기년전(新年殿)

오늘날 천단은 유명한 관광지이다.

자금성을 둘러보고 온 관광객들은 이곳을 꼭 한 번 들른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도 지방에서 올라온 중국사람들과 대만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우리말로 수 천명의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었다.

천단의 중심은 기년전.

눈부시게 하얀 백석 계단의 울타리 위에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기년전.

황제가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에 친히 와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원형으로 지어진 이 3층 건물은 1420년, 명나라 때 지어진 고풍스런 건물이다.

순전히 나무로만 지어진 이 원형건물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나 조선시대의 목조건축물들이 그리하듯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지은 것이다.

과거의 황제들은 기년전 내부에 있는 원형의 돌 위에 신위를 모셔놓고 차례를 드렸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마치 황제가 된 양 이 고풍스런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또 기년전 앞에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의 천심석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는다.

〈우주의 중심〉돌 위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평생 건강이 따른다는 속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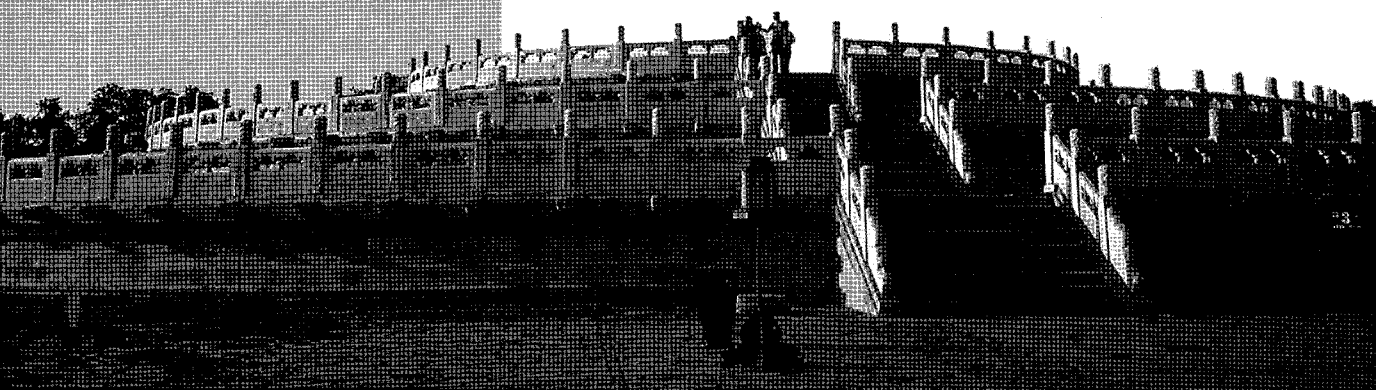
관광객들은 서로 그 돌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순서를 다룬다. 그리고 이어.

회음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본다.

회음벽(回音壁)은 긴 회랑이다.

소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 이름이 회음벽인 이 길고 둥근 회랑의 벽에 귀를대고 있으면 맞은 편 벽에서 속삭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회음벽은 황제가 단상 위에서 내린 옥음(玉音)이 벽에 반사되면서, 벽을 타고 흘러 만인이 들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벽이다.



우리나라의 덕수궁에도 황제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을 수 있도록 긴 회랑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이다.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던 고대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특수한 공명장치를 벌써 이 때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다리가 아플 정도로 큰 천단.

내성의 1/4이나 차지한다는 이 천단은 오늘날 공원으로 지정되어 북경 사람들에게는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고, 관광객이 되기도 한다.

천단을 한바퀴 돌고 이제는 가야 할 시간.

하루에 5,6천명이나 들이닥친다는 이 천단 공원의 공중 화장실은 어떤 모습일까.

천단 공원 매표소 입구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섰다.

비닐 커튼이 쳐져있고, 그걸 걷고 들어서니. 우리나라의 30년 전 극장 안의 화장실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낮은 소변기와 거울. 그리고 대변기.

질척한 바닥에 약간의 찌린내가 풍겨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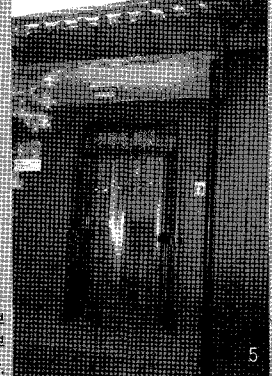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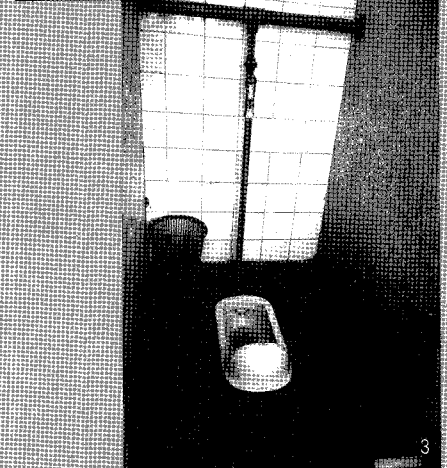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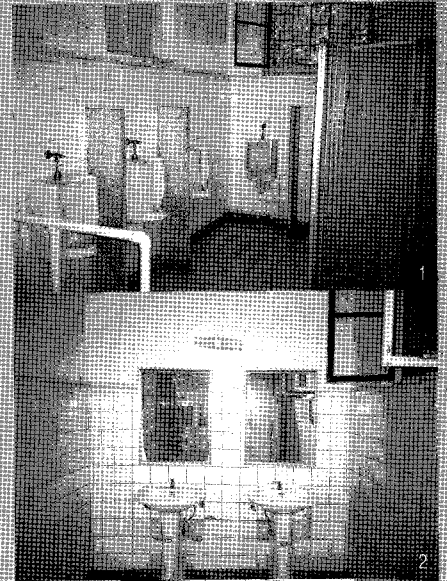
유명한 공원이어서 그런대로 관리는 잘 하고 있지만, 위생수준이나 변기의 질이 공원의 품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더구나 천단 공원은 한사람의 입장료가 35위안(5250원)이나 할 정도로 비싼 곳이다. 이 정도로 비싼 입장료를 받으려면 화장실 관리나 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해야하지 않을까.

근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 전문관리 산업인 어메니티 산업이 성행하고 있고, 관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참에 중국도 대형공원이나 식당들에는 이런 업체들에게 화장실 관리를 맡겨봄이 어떨까.

요즘의 중국은 조국근대화에 바쁜 나머지 아직 화장실에까지는 관심을 못가지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배려하는가, 마는가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1. 천단공원 남자화장실내부  
3. 천단공원 여자화장실내부  
5. 입구에 비닐로 된 커튼이 쳐져있다.